산업통상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	2026. 7.31.(금) 06:00 < 7.31.(금) 석간 >	배포	2026. 7. 30.(목)

전기차·친환경 선박 등 4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

- 제53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 개최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는 제5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(서면)를 개최하여 ㈜삼성정밀, Mt.H콘트롤밸브㈜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.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754억원을 투자하고 99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.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㈜삼성정밀은 브레이크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차용 드럼 브레이크 시장에 진출하고, 퍼시픽엑스코리아㈜는 자율제조형 공정 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제품 정밀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다. ㈜지퓨텍은 온·습도 및 압력 제어 기술을 활용해 컨트롤러 일체형 서보밸브를 제조하고, Mt.H 콘트롤밸브㈜는 선박 및 산업용 안전밸브 정밀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선박 가스 밸브 트레인(GVT)을 생산한다.

김주훈 민간위원장은 "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해 발 빠르게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, 승인된 계획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." 고 강조하였다.

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"공급망 핵심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 생태계의 효율화, 고도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" 라며, "기업들의 노력이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R&D ·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"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	책임자	팀 장	김 효 (044-203-4230)
		담당자	사무관	문의진 (044-203-423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 대체불가 대한민국 |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